

이 달의 초점

# '97년도 보건복지정책



좌담

- 일 시: 1996년 12월 27일 (금) 09:30
- 장 소: 보건복지부 회의실
- 사회자: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참석자: 전계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용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자:**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마무리하고 정축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쁘신 시기에 두 실장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내용은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최근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 이후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실제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룩한 주요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은 전염병관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전계휴:**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도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부문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작년도에 이룩한 실적을 국민보건의료 측면에서 본다면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전염병관리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며, 국민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효율적인 암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별로 『지역암센터』를 설립하고 5개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암정복 10개년 계획(1996~2005)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암정복추진기획단』도 발족시켰지요.

“세계화선언이 있었던 1995년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 원년의 해였다면 1996년은 삶의 질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해”

**김용문:**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의 세계화선언이 있었던 1995년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 원년의 해였다면 1996년은 삶의 질 세계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복지 기본구상』, 『노인·장애인 복지증진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의료보험 적용기간의 지속적인 연장,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농어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도시자영자에 대한 확대 적용 모형개발 등 전국민연금 실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전계휴:**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발족도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완벽한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

건의료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산업을 21세기의 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우리나라가 OECD의 29번째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각종 국제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의 수준이나 복지관련 비용지출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 :**  
조남훈 부원장

*선진국의 복지병도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과다지출로 인한 시장부문의 침식으로 경제순환의 흐름을 저해함으로써 초래된 것임을 감안할 때 복지와 경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7년도 정부예산은 1996년 대비 13.4%가 증액된 반면에  
보건복지부예산은 20.3%나 증액”**

**김용문:**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발전의 주요 제약은 재원부족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보건복지재정이나 민간의 참여도는 선진국이나 현재의 우리 소득수준에 비추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 산재, 고용)의 성숙화에 따라 복지재정의 수요는 급진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 연륜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한 심층 분석이 없이 단순히 GNP 또는 정부 총예산대비 복지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연간 정부재정중 45% 이상을 국방과 교육부문에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재원의 급격한 증액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정부예산은 1996년 대비 13.4%가 증액된 반면에 보건복지부예산은 20.3%나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복지부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음을 의미하지요.

**사회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진국의 복지병도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과다지출로 인한 시장부문의 침식으로 경제순환의 흐름을 저해함으로써 초래된 것임을 감안할 때 복지와 경제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계휴:** 1997년에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진형 보건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 및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동시에 세계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생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제도개혁』을 '97년 9월까지 마무리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 선진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책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21세기 복지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점”

**김용문:** 1997년도 사회복지분야의 시책방향은 1996년 2월에 수립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책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21세기 복지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인문고교생 전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997년도 상반기중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최저생계비 결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1997년도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어떠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보건분야에서는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적극 추진과 사회복지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착에 중점”

**전계휴:** 예, 보건분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적극 추진과 사회복지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전국 약 4만 3천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토록 하고

---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 금지, 주류의 상표와 담배갑 앞·뒷면에 『건강유해』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금연·절주시책을 실현하였는데, 1997년에도 금연·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건강증진목표 분야별 수립 및 보건소 중심의 국민영양사업 본격 실시 등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1997년 7월부터 조성·운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입원·수용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재활과 사회복귀중심의 환자관리체계를 구축시켜 나갈 계획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환자의 퇴원, 처우개선심사 및 자문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자:** 낮은 출생률이 지속되면서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 증가, 성비 불균형 등 새로운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까지의 산아제한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변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성상담의 실시 등 가정복지사업을 강화할 계획”

**김용문:** 내년에는 신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성상담사업의 실시 등 가정복지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산층 이상의 피임실천은 자율에 맡기고 저소득층에 대한 피임보급은 계속 정부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 및 성비 불균형 개선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큰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3시간 대기 3분 진료, 환자의 종합병원 편중, 제한된 보험급여항목 및 불친절 등에 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온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저렴한 의료수가, 의료인력의 적정수급, 양·한방 협진체계 등 현행 의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의료제도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전계휴:** 앞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질적·양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의료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수혜자와 공급자간의 괴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시장의 개방에



전계휴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질적·양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의료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수혜자와 공급자간의 괴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른 의료산업의 육성 등 21세기의 대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의료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제도 및 구조상의 비효율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인력수급, 의료보장의 내실화,

의료산업의 육성, 한의약 발전 등 5개분과로 운영중에 있으며, 단기과제는 1997년 3월까지, 그리고 중장기 과제는 10월까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1996년에 있었던 한·의약분쟁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의료제도 개선이나 개혁은 관련집단간의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료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의료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심 없는 양보정신이 선행될 때 개혁도 가능”

**김용문:**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의료개혁은 21세기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고, 현행 의료제도상 비효율과 불합리를 제거하려는 의료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심 없는 양보정신이 선행될 때 개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현은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한 의식과 행동이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의료개혁은 해결하기 쉬운 단기

---

과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국민편의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4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김용문:** 동감입니다. 1996년에는 39개 3차 진료기관 및 5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4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치의 등록제의 추진, 가정간호시험사업의 확대실시, 지정진료제도의 개선 등 의료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전국 12개 권역에 100병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419억원을 지원하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1,700억원의 농특자금과 재특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민간병원의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전계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장기매매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와 장기이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지방청』의 발족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국민건강과 소비자를 우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의약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약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

**전계휴:** 예,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는 10개 약효군 1,963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국내외 부작용 사례를 평가 처리하여 의약품전문인에게 주요 정보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였고, 한약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유기염소계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갈근과 녹용 등 36종 한약제에 대해서는 규격품만 취급토록 유통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소비자를 우선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하며 의약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약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의약품 유통 관리, 가격 안정, 오·남용 등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를 1998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

**전계휴:** 의약품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함께 전문·일반의약품의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제약협회내에 『회귀의약품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수요가 적고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공급업소와 수용자간의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약업소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가격안정 및 유통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 『제약회사→도매상→병·의원, 약국』으로 이어지는 유통체계를 추진하고, 도매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시설과 운영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우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제도』를 1998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용문:**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청소년이 남용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와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대책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수입 식품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식품위생기준의 과학화·국제화를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

**전계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위생기준의 과학화·국제화를 추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 유통·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전담하는 집행기관으로 개편하고 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용문:** 1996년도에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농약을 203종으로 확대하고 우유·축산물의 항생제 등 항균성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고 유통기한이 긴 261개 품목에 대해 식품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등 식품위생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97년도도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신개발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립하는 한편, 과자류 등 64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등 식품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문**  
사회복지정책실장

1997년도도 중금속 등 환경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신개발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립하는 한편, 과자류 등 64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 등 식품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계휴:** 콩나물, 간장, 참기름 등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도 유해요인 관리를 강화하여 기초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냉동·냉장(Cold Chain)체제 확립을 위한 시설 및 장비도입비를 지원하고, 유통업체의 대형화 및 유통과정의 선진화로 식품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회자:**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의 지속적 확대, 주력생산품목제도의 실시,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정부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

**김용문:**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한 산업분야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6년에 신약개발연구용역비와 선도기술개발사업비를 확대지원하고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 사육소 등 신약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자금 200억

원을 융자하는 등 신약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이같은 재정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력생산품목제도를 실시하며,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각종 정부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한국식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가공식품의 수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전계휴:**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한국식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가공식품의 수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입식품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식품위해 요인 관련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기 위한 식품위해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식품에 관한 정보체계의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회자:** 작년에는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고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대해서는 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고가의료장비인 CT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보험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의 내실화와 관련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인 안정과 관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의료보장제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갈 것”

**전계휴:**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인 안정과 관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의료보장제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270일로 연장하고 만성중증질환자의 의료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연중 급여대상 질병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청기와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차등지원액의 확대 및 건당 12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및 노인의료비의 재정 공동부담사업의 확대로 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 운영 및 의료보험조직 진단 등을 통해 의료보험관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용문:** 의료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1995년 1월부터 구성된 『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협의회』를 구성하여 마련 중에 있는 의료보험수가구조를 진료행위의 난이도, 빈도, 의료원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산정체계를 수립하여 1997년 하반기

---

부터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며, 정상분만·제왕절개수술 등 5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일정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 기피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의료보호사업은 어떻게 개선되는지요?

**전계휴:** 의료보호수가에도 의료보험과 같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의료보험의 1/2 수준으로 적용하고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진료실적당 배분방식으로 전환하여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약국 의료보호 실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회자:** 국민연금제도를 1998년도에 전국민에게 실시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어민연금의 정착 및 도시자영자에 대한 확대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도시자영자에 대한 모의 연금 실시 및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물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

**전계휴:** 예, 1996년도에는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및 선납·분기납 등 납부편의제도를 실시하고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농어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을 1995년 7월 시행 당시 54%에서 74.5%로 향상시켰는데, 1997년에는 도시자영자에 대한 모의 연금 실시 및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1998년중에 실시할 예정인 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며,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사회복지 부문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생계, 의료, 교육, 주거분야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내실화 할 계획”

**김용문:** 사회취약계층의 안정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데 기여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이들 스스로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기반의 확충에 역점을 둘 것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생계, 의료, 교육, 주거분야의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부조를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

**김용문:**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수준을 1996년에는 최저생계비의 80% 수준까지 보장하였는데, 이를 9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를 신규지원하고 가구별 소득에 따른 차등보호제를 실시하고, 서울 3개소 등 5개소에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립지원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에는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인문계고교생 전체로 확대, 생업자금융자한도 확대, 생활보호대상자중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보호비 신규지원, 생활보호가 필요한 자의 보호누락 방지 대책강구, 생활보호업무 예고제 실시, 자활지원센터 5개소 추가지정·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자:** 1996년도에는 루즈벨트 장애인 상을 수상했고 실제로 『장애인먼저 운동』 실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도에는 어떤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UN/ESCAP 『아·태장애인 10년 대회』 개최,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및 재활의욕을 북돋우는 계기로 활용”

**김용문:** 올해에는 UN/ESCAP 『아·태장애인 10년 대회』 개최,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 및 재활의욕을 북돋우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자립자금 융자한도 확대, 자녀교육비 지원을 인문고생 전체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을 장애인 가구주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1/2 감면 및 TV수신료 전액 면제, 철도요금 할인대상 확대, 전화요금 50% 할인, 장애인 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등 각종 요금의 감면 및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계휴:** 그 이외에도 장애인의 자립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그룹홈사업을 인천·광주 등 5개소에 실시하고,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용 지팡이, 안경, 보청기, 인공후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활공학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저출산율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개선되는지요.

“노령수당의 지급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할 예정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을 70개소로 증설할 방침”

**김용문:**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1997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할 예정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능력은행을 60개소에서 70개소로 증설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치매전문요양시설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치매전문병원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며, 장기요양과 진료기능을 갖춘 노인전문병원 3개소 설치로 노인에 대한 적정진료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검진수가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가정봉사원과 보건센터 및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전계휴:** 아울러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전국에 5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호는 물론,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자:** 사회복지의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민간의 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민간주도의 성금모금관리 및 연중모금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

**김용문:** 지난 해에는 재가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가복지봉사센터를 39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15개 시·도에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연결,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백서 1만 부를 제작·배포했습니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관 12개소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25개소 확충, 세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의 복지사업 참여 유도,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발전적 개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상 각종 규제완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주도의 성금모금관리 및 연중모금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계휴:**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조정 및 최저생계비 결정 근거마련 등을 위해 생활보호법을 1997년 상반기 중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은 어떻게 개선되는지요.

**전계휴:** 1996년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에게 한국복지재단을 통하여 후원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1,000세대와 시설퇴소아동 1,200명에게 2,500만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및 학대받는 여성보호를 위해 상담소 18개소를 신설하고 일시보호시설 7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용자한도액 및 아동양육비 지원수준을 인상할 계획”

**김용문:**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월소득 972,000원(4인 가족 기준)이하 가정에 중·실업계 고등학생 학비 및 6세 이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용자하였는데, 1997년에는 생업자금 용자한도액 및 아동양육비 지원수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자:** 저출산율의 지속과 핵가족화의 촉진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처하는 가족상담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문:** 그렇습니다. 가족을 단위로 하는 종합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중인 7개 청소년상담실을 전국 12개의 『가정보건복지 종합상담실』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가정폭력상담, 요보호대상 가정에 대한 상담관리를 통한 가정해체의 예방사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건전한 가정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의 복지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계획은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2,648개소를 확충하여 영유아 15만 5천명을 추가 보육하며,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

**김용문:** 1996년 12월 현재 11,38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38만 3천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2,648개소를 확충하여 영유아 15만 5천명을 추가 보육하며,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최근 혼례, 상례 등 가정의례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허례허식을 퇴치하고 근검절약 하는 가정의례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문:** 그렇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과 국민생활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생활개혁 차원에서 불법·부당요금 징수근절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특자금지원을 통한 장례식장, 납골당의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앞으로 2~3년간은 21세기를 대비한 보건복지제도의 선진화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서문희 보건복지포럼 간사)